

5월 광주·전남 소비·건설 악화 지속

대형소매 판매 전년동월 4.1% 감소
광주 준공후 미분양 전월비 20% 증가
전남 생산·설비·건설투자 모두 줄어

광주·전남지역의 소비, 건설 등 경기지표가 또 다시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제조업 등 일부 생산 측면에서는 소폭 개선됐으나 소비심리 침체 등으로 소비와 건설은 모두 감소했고, 전남은 생산과 소비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지표가 악화를 반복했다.
그나마 최근 이재명 새 정부 출범 기대효과에 힘입어 광주지역의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등이 대폭 회복됐다는 조사결과<광주일보 7월 14일자 9면>가 나온 점은 위안이 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5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1.0으로 전년 동

월(105.3) 대비 4.1% 감소했다.
업태별로 백화점은 0.1% 증가했지만, 대형마트가 9.7% 감소하며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월 기준 1580억원으로 전년 동월(1623억원) 대비 2.6% 줄었는데, 여전히 5월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가 94.7로 기준치(100)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은 건설 및 부동산 한파도 지속됐다.
광주시 5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3만㎡로 1년 전보다 42.2% 감소했다. 상업용과 공업용 착공면적이 각각 6.7%, 39.9% 증가했지만, 주거용 착공면적이 2000㎡로 73.2% 줄어든 영향이다. 더불어 건축허가면적 역시 20.3% 감소한 6만 4000㎡에 그쳤고,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역 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419호로 전월(349호) 대비 2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3.6에서 86.0으로 8.1% 감소했고, 판매액도 6.3% 줄

어든 662억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지역 내 백화점이 없고, 대형마트만 있다는 점에서 업계 불황으로 인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남은 소비 측면 외 생산,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대부분 경기지표가 모두 뒷걸음질쳤다.
전남 5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0.1% 감소했다. 업종별로 제1차금속이 9.2% 증가했지만, 비금속광물(-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0%) 등이 전반적인 하락을 견인했다.
설비투자에서도 기계류 수입액이 1년 새 18.3% 감소했고, 제조업 설비투자지수는 2p 상승했지만 79에 머물러 전국(84)과 광주(97) 등 타지역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남은 지난달 회복된 듯 보였던 건축·부동산 경기도 다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5월 건축착공면적은 13만 3000㎡로 전년 동월보다 42.1% 감소했다. 주거용(-48.9%), 상업용(-32.6%), 공업용(-54.3%), 기타(-42.4%)에서 모두 건축착공면적이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기업 녹색경영·환경 규제 이행 지원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업무협약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 녹색 경영 지원·환경 규제 예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녹색경영 실천과 환경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또 광주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관련 지원 사업 설명회·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환경규제 관련 제도 개선 대응 등을 위해 협력한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지역 기업이 ESG 경영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규제 이행에 힘쓰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원활한 대응이 쉽지 않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광덕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등 광주지역 이스포츠 선수들이 지난 9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최 '2025 GES 장애인 이스포츠대회-내가 제일 잘나가'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ICON 제공)

GICON, ‘2025 GES 장애인 이스포츠대회-내가 제일 잘나가’ 성료

10개교 109명 선수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9일 광주이스포츠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발달장애인 고등학생을 위한 이스포츠 축제인 ‘2025 GES 장애인 이스포츠대회-내가 제일 잘나가’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E-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문화 확산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참가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게임을 통한 긍정적 자아 표현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광덕고, 광주제일고, 전남고 등 광주지역 10개교의 109명 선수가 참여했으며, 대회 종목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로 진행됐다.

대회 현장에는 140여명의 관객이 동참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내가 제일 잘나가’ 대회는 장애 학생들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E-스포츠를 통한 광주의 포용도시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광주 먹거리는 자동차…GGM 노사 안정돼야”

글로벌모터스 생산 공장 방문

광주경총·자동차협회(광주경총)이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노사 안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지난 11일 회원사들과 GGM과 광주모빌리티진흥원을 방문해 지역 먹거리인 모빌리티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GGM은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지역 사회·노동계·기업 등이 함께 만든 완성차 공장이다. 현재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다.
시찰단은 GGM의 차체·조립 라인을 견학한 뒤 GGM 현황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GGM 관계자는 “GGM은 700여명의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이 20~30대, 광주·전남 청년층”이라며 “GGM이 노사 상생을 전제로 시작된 만큼 상생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GGM을 만들 때 공장 증설을 통해 최대 20만대까지 만들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설을 통해 최대 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통해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만들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또 광주모빌리티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기술을 살펴보고 전기차 구동 시스템, 배터리 안전성 평가 등 미래차 핵심 기술 개발 현황과 지역 부품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신한·하나·농협銀,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중단

은행들이 가계대출 수요 역제를 위해 대출모집인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차단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대출모집인이 8~9월 실행 예정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도 이날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8월 실행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7월 실행 건은 이미 지난 7일 중단됐고 이제 8월 실행 예정 건도 대출모집인 채널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9월 실행 건의

경우 접수 중”이라고 말했다.
NH농협 관계자도 “모집인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달마다 관리하고 있다”며 “7~9월 실행분의 한도가 이미 소진됐다”고 전했다.
앞서 8월 기업은행도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막았다. 다만 전세대출은 별도 제한이 없고, 이달 실행 예정 대출 신청은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연합뉴스

주요 손보사 내달 보험료 인상 예고

예정이율 인하 검토에 나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예정이율 인하 검토에 나서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다음 달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 인하 여부와 인하 폭, 적용 상품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대해상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예정이율은 계약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용해 얻는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정 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소비자가 같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매달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p 내리면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10% 내외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철 농축산물 40% 할인…정부 유통업체 지원

농식품부 여름 휴가철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광주·전남 등 전국 1만여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제철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지원사업을 펼친다.
농식품부는 14일 “오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진 및 각 가계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 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된다.
사업 기간 중에는 소비자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 중 중심으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7개 업체와 네이버마트, 다담식자재마트, 여수식자재마트 등 중소형마트 19개 업체, 전국 하나마트 2212개점, 천하장매장 5개 업체, 로컬푸드직매장 12개 업체가 할인 행사를 펼친다.
특히 해당 지역 특유의 농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

는 로컬푸드직매장에는 광주남구로컬푸드, 순천로컬푸드 등 광주·전남의 업체들이 포함됐다.
온라인에서는 민간온라인몰 9개 업체, 공공기관·지자체몰 5개 업체가, 전통시장 분야로는 광주 3개, 전남 9개, 서울 19개 등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정부 할인과 더불어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주일마다 1인당 구매 금액 2만원까지만 혜택을 제한한다.
또 전통시장에서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만 만나볼 수 있던 현장 환급행사를 100억원 규모로 진행함으로써 로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하고, 최대 2만원까지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분기 청년 사업자 역대 최대폭 감소

광주 847명·전남 468명 줄어

경기침체 장기화 등 내수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TIS)에 따르면 전국 청년 사업자(30세 미만)는 올 1분기 기준 월평균 35만 4672명으로 전년 동기(38만 919명) 대비 2만 6247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9월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청년 사업자는 월 평균 1만 477명으로 전년 동기(1만 1324명)보다 847명 줄었고, 전남지역도 1만 1336명에서 1만 868명으로 468명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청년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최근 3년여 간 고물가로 인한 소비침체가 장기화 지속된 데다, 대부분의 청년 사업자들이 빚을 내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마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 사업자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코로나 19 당시인 2020~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2023년을 기점으로 감소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전국 청년 사업자 수를 살펴보면, 1분기 기준 2020년 25만 2230명, 2021년 28만 6692명, 2022년 30만 8488명 등 매년 2만~3만여명씩 증가해왔으나, 2023년 1분기에는 31만 6852명으로 상승폭이 8000여명선으로 대폭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202.03 (+26.26)
↓ 코스닥	799.37 (-1.10)
↑ 금리 (국고채 399년)	2.474 (+0.026)
↑ 환율 (US D) 〈오후 4시 47분 기준〉	1380.20 (+4.80)